

싱글라이제이션, 늘어나는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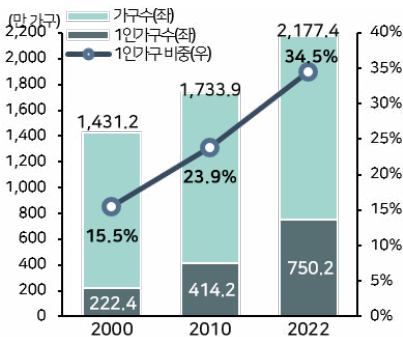
강영신(주택금융연구원 연구원), 김민수(주택금융연구원 인턴)

- ▶ 전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인가구가 750만 가구를 넘어서며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로 1인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 ▶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1인가구의 지역적 분포나 연령대별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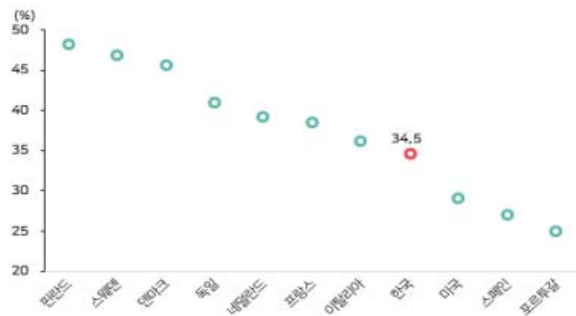
● 최근 전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전체 2,177만 가구 중 1인가구는 34.5%인 750만 가구로 2010년과 비교하여 1인가구수가 81% 증가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43만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증가 가구 중 75.8%인 336만 가구가 1인가구
- 한국과 다른 국가의 1인가구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EU국가 1인가구 비중 평균(34.6%)과 비슷한 편이며, 유럽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은 40%를 넘고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40%는 안 되나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

〈 한국 1인가구 추이 〉



〈 2022년 국가별 1인가구 비중 비교 〉



※자료: 통계청,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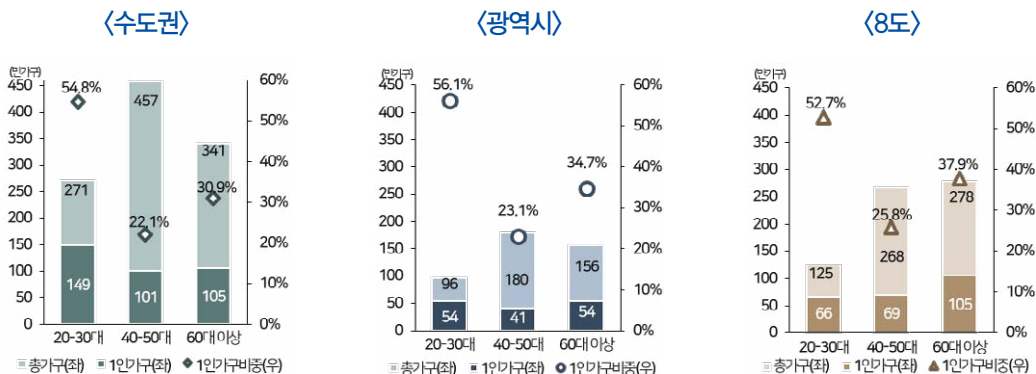
●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은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영·미권에서는 싱글톤(Singleton), 일본은 히토리구라시(一人暮らし), 중국의 경우 단선후(單身戶)라고 표현(박지혜, 2015)

- 1인가구 증가는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니며 대부분 국가들도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
-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짐에 따라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 대두
-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가구의 비중이나 분포, 겪는 어려움, 필요 정책 등을 연령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비중) 우리나라의 1인가구를 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로는 수도권·광역시·8도로, 연령별로는 청년(20~30대)·중장년(40~50대)·노년(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

-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청년층(20~30대)은 2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이며, 권역별로 비교할 경우 광역시와 수도권의 1인가구 비중이 8도에 비해 높은 편
 - 20~30대 1인가구 비중은 수도권이 54.8%, 광역시 56.1%이지만, 8도의 경우 52.7%로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대도시권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편
- 중장년층(40~50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1인가구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으나 8도,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40~50대 1인가구의 경우 8도의 1인가구 비중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 연령대별 1인가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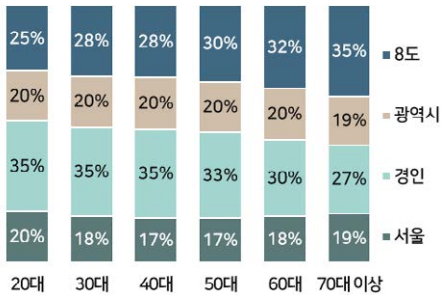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년, 연령·권역별 총가구는 가구주 기준)

-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중장년층처럼 8도,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8도 권역의 경우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
 - 수도권의 경우 60대 이상 1인가구 비중이 30.9%이지만, 8도와 광역시의 경우 각 34.7%, 37.9%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고령 1인가구 비중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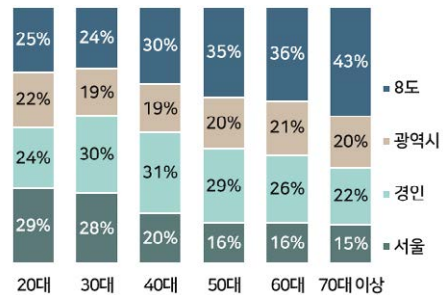
● **1인가구가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20-40대 1인가구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50대 이상부터는 8도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1인가구가 주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1인가구와 다인가구원으로 구분하고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 8도 지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중을 구함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하여 8도 권역 거주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8도 거주 비중이 높아짐
 - 50대 다인가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절반씩 분포하고 있으나 1인가구는 35%가 8도 지역에 분포
 - 70대 1인가구는 43%가 8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다인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비중이 46%로 다인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가 8도 지역에 더 많이 거주
 - 그에 비해 30대는 1인가구의 58%, 다인가구는 53%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다인가구(일반가구원-1인가구) 연령대별 권역 비중(2022년)



1인가구 연령대별 권역 비중(2022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년)

※ 주1) 일반가구의 가구원(일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집계(혼인 상태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특별조사가구(군인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이나 원하는 지원 정책 등이 달랐으며 특히, 고령 1인가구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1인가구에게 현재 생활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균형잡힌 식사 즉,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준비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응답

*1인 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항목 8가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해당 어려움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

- 그 다음으로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시에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나 '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의 가사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응답
- 균형잡힌 식사에 대한 어려움을 제외하면 50대 미만의 경우 가사활동, 50대 이상부터는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 혼자 대처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특히 70대 이상에서도 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의 가사활동이 어렵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 시 위급상황 발생 대처나 가사활동 보조를 위한 지원이 필요

< 1인가구가 느끼는 어려움(202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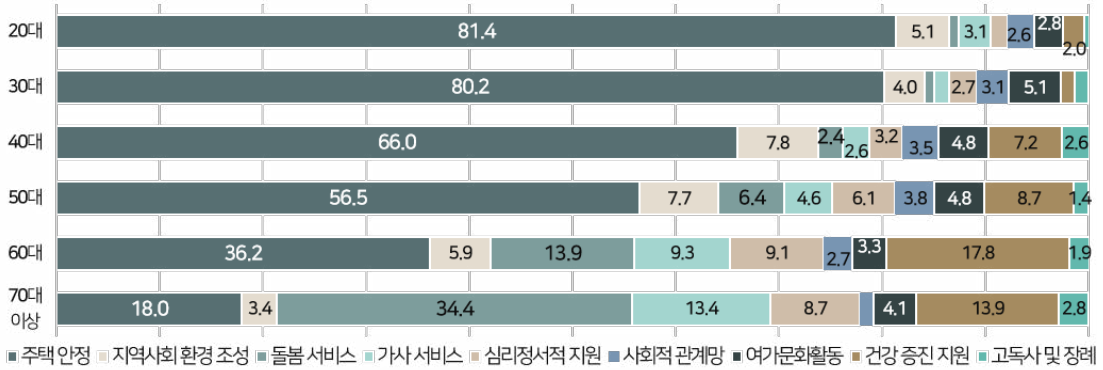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외로움	위급시 대처 어려움	균형잡힌 식사	가사활동 어려움	주거환경 위험	범죄 위험	경제적 불안	부정적 시선
전체	18.3	30.9	42.4	25.0	11.5	9.6	19.5	9.9
20대	8.0	15.3	46.6	23.4	9.6	12.4	6.7	7.8
30대	9.1	17.3	42.8	21.1	10.6	8.2	8.7	7.1
40대	9.5	17.6	32.3	11.5	7.3	5.5	12.4	13.0
50대	16.0	27.4	34.2	18.9	12.2	8.8	26.7	11.5
60대	25.8	38.6	42.3	26.4	12.4	9.3	28.7	14.2
70세 이상	27.8	47.9	48.4	35.8	13.4	10.8	23.4	7.0

※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70대 이상에서는 주택 안정보다는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나이가 어릴수록 1인가구 대상 주택 청약 공급 확대, 주택 마련 자금 대출, 주거비용 지원 등의 주택 안정 지원 정책을 원하는 비중이 높았음
- 하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주택 안정 지원정책보다 1인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세대별로 원하는 지원정책이 다소 차이를 알 수 있음

<1인가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정책(2020년)>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60대 미만의 1인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 관련 지원과 70대 이상의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한 돌봄서비스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 중인지 살펴봄

-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은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나 돌봄·고독사 방지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나 지원에서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다양한 정책·지원까지 포괄하여 표현
-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1인가구의 복지 증진 대책이 포함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1인가구 조례나 지원 정책 등을 시행
 -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별로 1인가구에 대한 복지 개선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수립하며 2023년 11월 기준 140개 지자체에서 운영

1인가구 관련 주거 안정 지원은 임대차 계약 관련 지원, 주택 보수, 이사와 관련한 지원 등이 있으며, 주택 임대료 지원이나 주택 금융 이용 자격 완화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전월세 안심계약 :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이나, 고령 1인가구가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상담, 계약물건 탐색, 계약 물건 확인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이와 별개로 서울시 일부 자치구나 인천시 등에서는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전월세 임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원사업도 시행

- 주택관리서비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 임차가구(중위소득 120% 이하)를 위해 형광등·콘센트 교체, 블라인드·방범창 설치, 소규모 집수리(싱크대, 수전, 변기 등),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
- 이사 지원 :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포장이사나 입주청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이사차량이나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운영
- 주거 금융 지원 : 다른 연령대의 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등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을 시행중
 - 서울시에서는 그 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저금리로 일부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는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등을 운영

● 주택 공급 지원은 기존 다인가구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주택 유형을 확대하여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들, 예를 들어 소형 주택, 공유 주거방식의 주택, 고령자 주택 등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나 그 중 1인가구를 위해서는 혼자서 거주할 수 있는 소형 평형을 주로 운영하며 행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있음
 -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어있는 주택이며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1인가구 주거지원 :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 1인가구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홀몸어르신주택이나 의료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안심주택 등을 공급, 운영하며 주거안정을 도모
 - 홀몸어르신주택: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금천구의 보린주택, 은평구의 은빛주택 등이 대표적
 - 의료안심주택은 노인가구(1인가구 포함)나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같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으로 주택 외·내부는 무장애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입주자가 일정시간 현관이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건강이상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위험을 방지
 - 중랑구의 신내의료안심주택이 대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서울의료원 앞에 지어 입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 확대

보린주택



※자료: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coHouse)

신내의료안심주택



※자료: 네이버지도

■ **공유주거** : 인구구조 변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거 주택은 개인적 공간과 공유 공간이 공존하는 형태로 셰어하우스, 코리빙 하우스(임대형 기숙사) 등이 있으며 최근 코리빙 하우스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임대형기숙사 항목을 신설

- 셰어하우스는 방은 각자 쓰지만 화장실, 거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업체에 따라 입주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업체별로 계약기간 등의 운영 방식이 다른 편

▶ 우주(WOOZOO) : 2013년 시작된 '셰어하우스 우주'는 아파트, 빌라, 주택 등 200개가 넘는 셰어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입주자의 연령이 20~35세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

- 건축법상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되는 코리빙 하우스(co-living house)는 덴마크에서 고�령자를 위해 만든 코하우징에서 유래된 것으로 방, 화장실, 간단한 싱크대 등을 개인공간으로 마련하고 거실,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 등을 공유하는 형태

• SK D&D, 트러스테이(KT에스테이스&야놀자 공동법인) 등의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부터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코리빙하우스까지 다양하게 존재

▶ 에피소드 : 2020년 SK D&D가 런칭한 공유주거 브랜드로 서울 성수, 서초, 강남, 신촌 등 6곳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앱을 통한 주거시설 이용과 입주자 대상 파티, 마켓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

▶ 아우룸빌 : 20년이 넘는 다가구주택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아우룸빌은 개인실 내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입주자 전용 라운지, 공용주방, 소극장, 빨래건조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

•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기숙사 항목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였으며, 임대형 기숙사는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과 달리 주차 대수 확보, 연면적 제한 등의 기준이 완화

-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만들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는 주택으로 1인가구 증가, 공동체 해제로 인한 고립 등과 육아, 주거불안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거주하는 것이 목적

• 1인가구의 경우 고독 방지, 육아 세대의 경우 공동 육아 등 입주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주택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1:2인가구를 위한 공동체 주택을 짓거나(서울 은평구 봉산아래), 예술인들이 모여사는 등 다양한 목적을 입주자들이 함께 이루는 것이 목적인 주택 유형

공유주거 사례



※자료: 우주 홈페이지

※자료: 아우룸빌 홈페이지

건강 및 돌봄서비스는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나 균형잡힌 식사에 대한 지원, 고령 1인가구의 건강체크 등이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이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다른 편

- 1인가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돌봄서비스나 가사 서비스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병원 안심동행 : 병원 진료나 입원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동행하고 귀가까지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편(서울, 경기 기준 시간당 5,000원)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시범사업 진행 1년 만에 월 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로 확대되었고 인천시나 강원도에서는 고령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운영
 - 또한 서울시는 입원 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를 위해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씻기, 옷갈아입기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요리 등), 개인활동(외출, 물품구매 등) 등 일상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중
- 경기돌봄사업 :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할 경기돌봄사업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미만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균형잡힌 식사 : 1인가구의 불균형한 식생활 문제가 국민 건강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자체별로 1인가구의 식사 개선을 위해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공유부엌 등의 공동체 지원, 소셜다이닝,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

- 서울시에서는 중장년(40-60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집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1인가구 공동체를 조직하여 혼밥을 개선하는 '공유부엌' 프로그램 지원
- 포항시에서는 저소득층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이나 1대1 맞춤 영양교육 등을 지원

- 고령 1인가구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안부서비스,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살피미 서비스 등을 운영
-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에서 인공지능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일상생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시 앞서 살펴본 연령별 1인가구 특징이나, 지역별 1인가구 분포를 고려하면 수도권은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8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 중인 60대 이상의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 1인가구 지원 정책이 대다수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1인가구의 연령대별·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자체별 지원 대상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및 1인가구를 연령대별과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분포를 살펴봄
 - ※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5대 광역시권, 8도권으로 구분
- 총 인구는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60대 이상 1인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와 8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 1인가구 상당수가 8도지역에 거주 중임을 알 수 있음

총 인구의 권역별 분포				1인가구의 권역별 분포			
	수도권	광역시	8도		수도권	광역시	8도
20대미만	8.0%	3.2%	4.7%	20대미만	0.3%	0.2%	0.2%
20-30대	13.8%	4.9%	6.3%	20-30대	19.8%	7.2%	8.8%
40-50대	16.7%	6.5%	9.7%	40-50대	13.5%	5.5%	9.2%
60대 이상	11.9%	5.2%	9.1%	60대 이상	14.1%	7.2%	14.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년)

-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지원이나 가사 활동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주로, 광역시 및 8도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므로 돌봄서비스나, 가사서비스, 아프거나 위급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청년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원룸형 소형주택이 공급되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도 다양함에 따라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인가구가 주택 규모, 주거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문헌

- 1인가구시대 주거정책방향, 국토 vol.489. 2022 07
-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coHouse)
- 서울주거포털
- 셰어하우스 우주 홈페이지
- 아우룸빌 홈페이지
- 유럽연합통계청(ec.eurostat.eu)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www.easylaw.go.kr)
- 통계청